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remarried families and quality of remarital relationship*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정 현 숙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유계숙 · 임춘희

전춘애 · 천혜정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Chung, Hyunsook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 Yoo, Gyesook · Lim, Choonhee

Jun, Chunae · Cheon, Hyejung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II. 재혼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Using in-depth interviews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quality of remarital relationship with 64 remarried people. It was found that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and marital boundary was clear in couples formed when both husband and wife remarry than in couples formed when only one partner remarries. It was also found that similarities in losses in prior relationship and experiences between remarried husband and wife migh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marital relationship. The quality of remarital relationship was found to be a good predictor of the quality of remarried relationships including parent-child relationship, stepparent-stepchild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with kins. Future researc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added.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문제제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가족 변동의 지표는 이혼율의 증가와 그에 따른 재혼의 증가라 할 수 있다. 1998년 현재 1일 평균 1,005쌍이 결혼을 하고 339쌍이 이혼을 하며, 전체 혼인유형 중 남녀초혼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재혼의 비율은 전체 혼인의 13%를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1999). 또한 재혼유형에서 재혼남과 재혼녀의 결합이 가장 많고(69%), 그 다음이 초혼남과 재혼녀의 결합(34%)이라는 사실에서 재혼의 양상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재혼을 앞선 해주는 재혼비즈니스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보도(중앙일보, 1999. 10. 19.)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재혼은 이제 더 이상 금기시되거나 좌악시되지 않으며, 오히려 신문지상이나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관심을 끄는 주제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재혼가족이 하나의 가족 유형으로 정착되고 있는 인구학적 변화는 재혼가족¹⁾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시각은 재혼가족을 문제가 많고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법적으로도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재혼은 분명히 초혼과 그 성격이 다르며 복잡한 특징을 갖는다(Spanier & Furstenberg, 1987). 초혼과 달리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은 대부분 전혼자녀가 있는 계부모가족으로 초혼 핵가족과 그 체계가 다르다. 즉 계부모가족의 자녀들은 두 가구의 구성원이고, 친부모가 자녀들의 현실이나 기억 속에 존재해 있으며, 계부모 가족성원들은 서로 다른 가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다른 가족유형보다 여러 면에서 더 복잡하다. 특히 계부모가족은 부모 자녀간의 유대가 배우자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가족생활 주기상의 불일치가 크다. 또한 계부모 가족은 많은 상실과 변화 후에 시작되며, 자녀와 성인은 이전 가족의 경험에 근거하여 재혼가족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재혼가족 생활을 시작한다. 더구나 계부모가족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고, 계부모자녀사이의 법적인 관계가 애매모호하거나 부재

하며, 가족 체계가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Ganong & Coleman, 1994; Hamner & Turner, 1996; Santrock & Sitterle, 1987). 이러한 특징들은 재혼가족 성원들을 역할의 혼란에 빠뜨리고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상담소를 이용한 재혼부부의 62.7%가 부부갈등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볼 때(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재혼가족의 구조와 관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해체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외의 재혼가족 연구경향은 재혼가족의 문제점에 초점을 둔 문제지향적 접근에서 계부모가족과 초혼가족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며, 계부모가족 유형의 다양성과 관계상의 복잡성에 초점을 두어 건강한 계부모 가족의 발달과 적응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Ganong & Coleman, 1994; Hamner & Turner, 1996). 그러나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국내의 연구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까지 부족한 재혼가족의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재혼가족 생활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재혼가족의 적응에서 핵심적 요소인 부부관계(Pasely, Dollahite, & Ihinger-Tallman, 1993)는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어 온 바와 같이 재혼한 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과 같은 역동성과 계부모 및 전혼자녀 문제 등 재혼생활의 다양한 측면들과 관련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재혼가족의 일반적인 특징과 전반적인 재혼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을 파악하며, 의사소통, 갈등해결,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재혼부부의 역동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1) 오늘날 재혼의 특징이 이혼자의 재혼이 대부분이며, 특히 유자녀 이혼이 압도적인 현실(1998년 현재 이혼당시 72.2%가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음 : 통계청, 1999)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양쪽 배우자가 무자녀인 경우의 재혼을 제외하고, 부부 한쪽이나 양쪽에서 전혼자녀가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는 가족을 재혼가족으로 정의하며 이는 곧 계부모가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재혼가족과 계부모가족을 혼용하여 쓰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다음의 문제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재혼가족에 대한 연구가 크게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재혼가족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고, 재혼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라서 재혼생활의 질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재혼생활의 질과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양적 연구를 통하여 재혼가족 생활의 실상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한 관련변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둘째,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와 개인 면접(individual interview)을 통해 재혼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봄으로써 그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재혼가족의 실태와 재혼가족생활의 질을 높이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재혼가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제고하여 이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및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한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II. 재혼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재혼가족의 특성

1) 성차

이혼이나 사별 후부터 재혼까지의 기간에서 나타난 남녀별 차이를 볼 때 이혼자나 사별자를 막론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재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anong & Coleman, 1994),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현재 남자의 재혼율이 8.8%로 여성의 7.5%보다 높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이처럼 남자의 재혼율이 더 높은 것은 재혼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변화순, 1996), 남자의 경우 경제적 지위 및 외적 조건이 유리하면 재혼 상대자는 여성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여자가

재혼하게 되는 경우는 여자의 재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편견, 전혼자녀문제, 자신보다 나은 조건의 상대를 찾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재혼 배우자의 선택 폭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2) 전혼해체사유

재혼을 전혼해체사유에 따라 사별 후 재혼과 이혼 후 재혼으로 나누어 볼 때, 이혼자의 재혼이 1996년 현재 80%이상이다(통계청, 1997). 재혼이전의 전혼해체사유가 사별로 인한 재혼인 경우 새배우자와 계부모로서의 역할이 전 배우자를 대신하는(replace) 반면, 이혼으로 인한 재혼인 경우 새배우자와 계부모로서의 역할이 대리적(surrogate)이라는 점에서 가족 관계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Furstenberg, 1987).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혼 후의 재혼가족이 친족이나 전 배우자의 친족으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반면, 사별 후 재혼가족은 상당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다.

3) 재혼의 형태

공식적인 인구조사에서 사용되는 재혼유형은 대표적으로 성별과 초혼/재혼의 기준을 조합하여 남녀재혼(재혼남+재혼녀)과 남재여초(재혼남+초혼녀), 남초여재(초혼남+재혼녀)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우리의 경우 남재여초의 재혼이 가장 많았던 과거와는 달리 1998년 현재 남녀모두 재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 보기 드물었던 재혼녀와 초혼남의 결합이 증가하여 재혼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혼자녀

재혼가족에서의 전혼자녀의 존재와 관련된 양육권의 형태와 동거여부를 살펴볼 때 미국의 경우 자녀 양육권이 여성에게 있으므로 82%가 계부가구(Glick, 1989)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관행상 이혼시 양육권을 남성이 주로 맡아왔고, 단편적으로 상담소를 이용한 재혼여성이 전혼자녀를 데리고 결혼한 경우는 7.5%인 반면, 계자

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241%로 나타난 통계(한국 가정법률상담소, 1996)로 볼 때 남자가 친부모로서 전혼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계모가족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김연옥, 1999)에서 비록 조사대상자 수는 적지만 재혼여성의 68.8%가 전혼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결과를 볼 때, 우리 사회에서도 재혼여성이 자신의 전혼자녀를 계자녀와 함께 키우는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재혼 후 출산자녀(mutual child)

재혼가족에서 출생한 자녀가 재혼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 재혼후 출산자녀는 가족의 유대를 공고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하며, 재혼 후 출산 자녀가 있는 부부가 다른 부부에 비해 보다 행복하다는 보고도 있는 반면(Ambert, 1988), 재혼가족에서 출생한 자녀가 재혼가족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갈등 및 불화를 초래하는 등 재혼가족의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한다(Ganong & Coleman, 1994 재인용).

2. 재혼가족내 하위체계

1) 재혼한 부부관계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나 결혼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계부모-계자녀 관계의 질, 역할기대의 모호성, 의견일치, 그리고 의사결정으로 밝혀졌다. 특히 계부모-계자녀 관계의 질(Pasley & Ihinger-Tallman, 1994), 그리고 계자녀와 관련된 부부의 의사결정과 의견일치(Pasley, Dollahite & Ihinger-Tallman, 1993)는 재혼 부부의 결혼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자녀의 존재는 대체로 계부모 역할의 모호성과 연관되어 재혼 부부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Kurdek(1989)의 연구에서는 계자녀의 존재가 계부가정인 경우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며 관계 지속에 대한 내적 동기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혼부부는 낮은 자존감과 갈등에 대한 공포, 그리고 배우자 선택시 자신들의 욕구충족을 위

해 배우자를 즉각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초혼부부에 비하여 서로에 대해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문제해결 기술도 서투른 것으로 나타났다(Farrell & Markman, 1986). 그러나 기능적인 계부모 가족은 초혼가족보다 의견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기술도 더 나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nderson & White, 1986; Ganong & Coleman, 1994).

2) 계부모-계자녀 관계

계부모-계자녀 관계는 재혼가족연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로 계부모-계자녀관계가 전반적인 재혼가족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관계이자(Crosbie-Burnett, 1984; Visher & Visher, 1990), 동시에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이다. 계부모-계자녀 관계에서는 특히 계자녀의 동거여부에 따라 계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 달라지며(Ganong & Coleman, 1994), 계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계부모와 상호작용이 많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계모인 경우 계부모로서의 역할 적응이 어려워 다른 가족구조의 맘에 비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분노를 많이 경험하며(Santrock & Sitterle, 1987), 부모역할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Ahrons & Wallisch, 1987). 계모의 역할적응이 어려운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부모로서의 역할기대가 크며, 계모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계모로서 준비가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Quick, McKenry & Newman, 1994). 그리고 계자녀의 입장에서는 생모에 대한 분노와 상처, 실망을 계모 탓으로 돌리는 점과 계모가족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계모-계자녀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Santrock & Sitterle, 1987). 국내 연구에 의하면 계모가 계자녀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계모 자신이 초혼인가 재혼인가에 따라 다른데 초혼계모는 계자녀의 학업이나 생활습관교정, 모정의 형성과 같은 주로 양육상의 스트레스를 겪는 반면, 재혼계모의 경우 생모와 왕래하는 계자녀의 문제, 계자녀의 반항, 재산문제, 계자녀와 친자녀간의 갈등 등 스트레스의 내용

이 복잡하고 심각했다(임춘희, 1996). 이와 반면, 계부와 계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의 친자녀 유무가 중요한 요인이다. 친자녀가 없고 계자녀와 동거하는 계부는 계자녀와 친자녀가 모두 있는 계부보다 아버지로서의 역할 정체감을 더 많이 지각하였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할 때 아버지로서의 지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mner & Turner, 1996).

3) 친부모-친자녀 관계

재혼가족내에서의 친부모-친자녀관계는 전혼 자녀 및 재혼 후 출산자녀와의 관계로 구분되며, 전혼 자녀와의 동거여부가 적응에 중요한 요인이다. 동거 친자녀에 대한 중단적 연구에 의하면, 재혼 초기에는 재혼한 어머니-자녀 관계가 악화되며, 자녀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지나, 재혼한지 2년이 지나면 안정적이 된다(Hetherington & Clingeempeel, 1992). 또한 재혼한 어머니의 경우 친자녀에게 권위주의적인 양육을 한다거나(Brang, 1987), 청소년기의 계부모가족에서 친부모들은 주도적으로 친자녀의 훈육을 맡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부모와 함께 자녀 양육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Ganong & Coleman, 1994). 임춘희(199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혼 친자녀의 존재는 재혼한 생모에게 지지자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재혼가족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생모에게 재혼가족에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의의대상으로 나타났다.

3. 재혼가족에서의 특징적인 정서적 관계

1) 충성심 갈등

충성심 갈등(loyalty conflict)이란 한 사람에게 대해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질 때 겪게 되는 심리적 갈등으로 흔히 분노심, 배반감, 질투, 죄책감 등의 복잡한 정서를 수반한다. 충성심 갈등은 계부모가족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적응과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정서로 나타난다(Pasley & Ihinger-Tallman, 1989).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친자녀와 새배우자 사이에서 감정의 균열을 느낀다. 그리고 계자녀와 동거하는 계부모는 자신의 친자녀와 계자녀에 대하여 충성심 갈등을 느낀다. 한편 자녀 입장에서 계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곧 비동거 친부모에 대한 배신으로 생각하여 계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자녀들은 특히 맘에 대한 심리적 애착이 크므로 친모와 계모 사이에서 충성심 갈등을 갖기 쉽다.

2) 경계의 모호성

경계의 모호성이란, 누가 가족 안에 또는 밖에 있으며, 가족체계내에서 누가 어떤 역할과 일을 하는가에 대한 가족원들의 지각이 불확실한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Boss & Greenberg, 1984). 일반적으로 가족이 성취해야 할 중요 과업중의 하나는 가족과 외부세계와의 경계 그리고 가족내 세대간의 일정한 경계를 정의, 유지하는 것인데(Boss & Greenberg 1984; Walker & Messinger, 1979) 특히 재혼가족의 경우 전배우자가족과 재혼가족간에 즉 이중 핵가족간의 경계가 설정,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Ihinger-Tallman & Pasley, 1987). 요컨대 가족이 최적으로 기능하려면 가족 성원 자격에 대한 협의 즉 모호한 상태를 명료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Boss, 1980).

Pasley(1987)는 비동거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물리적 부재에 대해 부부의 지각이 일치하면 경계 모호성이 낮고, 불일치하면 경계 모호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는데 계모가족의 경우 경계모호성이 높고, 재혼 후 출산자녀가 있는 재혼가족의 경우 경계모호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 결국 동거하는 계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부모편에서 가족성원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임상적인 접근에서는 재혼가족의 경계모호성은 재혼가족에 보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보는데 비해 Pasley와 Ihinger-Tallman(1989)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경계모호성이 높은 재혼부부와 낮은 재혼부부간의 결혼적응과 통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재혼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재혼자와 배우자가 재혼을 한 초혼자 남녀이다. 이들의 연령은 30세에서 6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의 평균 연령은 45.9세, 여성은 43.4세이다.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는 노인 재혼에 해당되므로,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제외시켰다. 본 연구 대상자는 의도적 표집에 의해 64명이 선정되었으며, 남성이 31.3%(20명)이며, 여성은 68.8%(44명)이다.

2. 측정도구

1) 재혼생활의 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재혼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재혼생활의 질 척도를 제작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재혼가족에서의 부부관계, 계부모-계자녀 관계, 친부모-친자녀관계, 친족 관계, 전혼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재혼상황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의 6가지 하위 개념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6가지 하위 개념들 각각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집하거나 5명의 연구자에 의해 작성된 문항들로 가측도를 구성하여 가족학 전공 교수 2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현재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2명을 면접하여 가측도 문항의 내용이 실

제 재혼 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 총 57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재혼생활의 질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고(.30 이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7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총 50개 문항을 재혼생활의 질 척도로 사용하였다. 재혼생활의 질 척도는 <표 1>과 같이 7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7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55.4%를 차지한다. 척도의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재혼생활의 질이 높다.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 재혼생활의 질 척도가 .9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척도의 하위 요인들 각각의 신뢰도는 $\alpha = .56 \sim .94$ 이다.

2)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재혼한 사람들의 현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현숙(1997)이 만든 RKMSS (Revised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RKMSS는 Schumm과 동료들(1983)이 만든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의 세 문항²⁾에 "당신은 아버지(어머니)로서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의 한 문항을 첨가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매우 불만족' (1)에서 '매우 만족' (5)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결혼생활에서의 만

2) 결혼생활에 대하여, 배우자로서 남편(아내)에 대하여, 남편(아내)와의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질문.

<표 1> 재혼생활의 질 척도의 신뢰도, 평균 및 표준편차

(N=64)

척도	문항수	가능한 점수범위	평균(sd)	신뢰도
부부관계	13개	13 - 65	46.15(9.23)	.90
계부모-계자녀관계	11개	11 - 55	24.86(14.74)	.94
부정적 감정 다루기	6개	6 - 30	15.54(6.18)	.84
경계의 명료성	7개	7 - 35	23.80(5.25)	.86
친부모-친자녀관계	7개	7 - 35	17.50(9.66)	.91
친족관계	3개	3 - 15	9.60(2.55)	.56
전혼가족과의 관계	3개	3 - 15	5.91(3.78)	.77
재혼생활의 질	50개	50 - 250	134.50(33.0)	.94

족이 높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결혼만족도 평균은 14.98(sd=4.28, 총점 20)로서 결혼생활에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95$ 이다.

3)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측정하기 위해서 Olson, Fournier와 Druckman(1982)이 만든 ENRICH(Enriching and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 Happiness)의 하위 척도 중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에서 '매우 그렇다' (5)의 Likert 척도이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의사소통의 평균은 34.25(sd=6.95, 총점 50)이며, 갈등해결의 평균은 34.95(sd=6.11, 총점 50)이다. 척도의 신뢰도는 의사소통이 $\alpha = .83$ 이며 갈등해결이 $\alpha = .77$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재혼자와 배우자가 재혼을 한 초혼자 남녀가 연구대상이므로 우선 척도를 구성한 후 재혼여성 2명에게 척도의 문항들이 실제 재혼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 문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1998년 12월 15일~1999년 2월 12일에 실시하였으며, 의도적 표출방법에 의해 연구대상자 150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재혼자들로서, 본 연구자들의 주변에서 이들 연구대상을 소개받아 본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 등을 설명한 후 설문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66부로 이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시켜 총 6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으로 처리하였다. 재혼생활의 질 척도의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 그리고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의 alpha 계수에 의한 내적 일치도 방법을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의 대상은 총 64명이다. 이들의 학력은 남성의 경우 고졸 이상이 전체의 90%(19명)를 차지하며, 여성은 고졸 이상이 86.4%(38명)이다. 연구대상의 직업은 남성의 경우 사무직, 전문기술직, 경영관리/전문직이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여성은 전업주부가 전체의 45.5%, 자영업이 15.9%, 전문기술직이 13.6%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의 평균 수입은 359만원이다.

연구 대상자의 초혼 상태 특징과 현재 결혼상태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결혼형태는 초혼이 15명(23.4%)이며, 재혼이 49명(76.6%)이다. 재혼자들의 초혼 상태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의 첫번째 결혼의 평균 지속기간은 9.4년이다.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남성이 19명(이 중 현재 동거 자녀수는 16명), 여성이 19명(이 중 현재 동거 자녀수는 11명)이며, 전혼자녀와 동거하는 남성이 16명, 여성이 11명이다. 전혼의 해체 사유는 사별이 16명(32.7%), 이혼이 32명(65.3%)이다. 한편 현재의 결혼 상태(재혼)에 대해 살펴보면,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가 32명(50.0%)이며, 한쪽이 재혼인 경우도 32명(50%)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혼여-재혼남은 25명(39.1%), 초혼남-재혼녀는 7명(10.9%)이다. 재혼기간은 평균 7.1년이며, 계자녀가 있는 경우는 남성이 7명(17.9%, 이 중 현재 동거 자녀수는 5명), 여성이 32명(82.1%, 이 중 현재 동거 자녀수는 18명)이다. 재혼 후 출산자녀가 있는 경우는 25명(39.1%), 없는 경우는 39명(60.9%)이다.

2. 재혼가족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재혼 생활의 질

재혼생활의 질이 성별, 재혼유형, 전혼해체 사유, 계자녀 유무 및 동거 여부, 전혼자녀 유무 및 동거 여부, 재혼 후 출산자녀의 유무와 같은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영역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재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이

재혼생활의 질에서 부모의 성별에 따라 계부모-계자녀 관계($t=-3.10, p<.01$)와 친부모-친자녀 관계($t=3.03, p<.01$)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영역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계자녀와의 관계는 여자(계모)가 남자(계부)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친자녀와의 관계는 여자(어머니)보다 남자(아버지)가 더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여자(계모)가 남자(계부)보다, 전혼자녀와의 관계에서는 남자(아버지)가 여자(어머니)보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재혼기간에 따른 관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계모의 역할은 적응이 어렵고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갈등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계부보다 계모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계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과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계부모-계자녀간의 갈등적인 관계는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악화되거나 호전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재혼 후 7년 정도의 기간(조사대상자의 재혼 지속기간은 평균 7.1년)을 통하여 상호작용이 보다 빈번한 계모와 계자녀가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을 터득함으로써 재혼생활 초기에 비하여 계모-계자녀간의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반면, 계부는 계모보다 계자녀와 일상생활의 공유시간이 적으며, 부모역할상의 비중도 적기 때문에 계자녀와 갈등의 소지는 적을 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서구사회와 달리 부계중심의 가족규범

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계부보다 생부의 아버지 역할이, 그리고 생모보다는 계모의 어머니 역할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재혼가족에서 계모와 계자녀, 그리고 생부와 전혼자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대 받는다. 더구나 계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고정관념은 계모로 하여금 계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주위의 편견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우리 사회의 부계중심적 규범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2) 재혼유형에 따른 차이

재혼유형에 따라서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한 결과에 의하면, 재혼유형에 따른 차이는 부정적 감정 다루기($t=8.22, p<.01$)와 경계의 명료성($t=3.76, p<.05$), 그리고 전혼가족과의 관계($t=3.44, p<.05$)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부부 양쪽 모두가 재혼을 한 경우는 부부 중 한 쪽만 재혼을 한 경우보다 재혼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훨씬 더 잘 다루며, 재혼가족 체계내에서의 경계도 보다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인이 초혼이고 남편이 재혼인 부부의 경우에는 남자초혼자와 여자재혼자의 결합이나 부부 둘 다 재혼인 경우에 비하여 전혼가족(재혼한 남편의 전혼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으로 재혼가족은 초혼에 비해 불명확한 가족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재혼가족의 경계는 재혼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전혼해체 사유에 따른 차이

전혼해체 사유에 따라서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 사별자와 이혼자의 재혼생활은 전반적으로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별자 집단과 이혼자 집단을 각각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와 사별하고 재혼

<표 2>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재혼생활의 질 평균 (표준편차)

(N=64)

사회인구학적 특징	재혼생활의 질 하위 영역 별 점수	부부관계	계부모-계자녀 관계	부정적 감정 다루기	경계의 명료성 관계	친부모-친자녀 관계	친족 관계	전혼 가족과의 관계	재혼 생활의 질 총점
성별	남자 (n=20)	49.15 (7.84)	17.15 (16.66)	16.70 (6.05)	23.75 (5.45)	22.11 (7.49)	9.90 (2.92)	5.63 (3.90)	142.15 (34.00)
	여자 (n=44)	44.75 (9.58)	28.95 (11.87)	15.00 (6.25)	23.80 (5.21)	14.48 (9.87)	9.44 (2.36)	6.03 (3.76)	130.70 (32.12)
	t값	1.80	-3.10**	1.02	-0.03	3.03**	0.66	-0.35	1.30
재혼 유형	여제남재 (n=32)	44.66 (9.76)	27.10 (13.28)	18.22 (5.66)b	25.50 (5.88)b	18.30 (9.26)	9.52 (2.54)	6.96 (4.12)b	142.81 (34.15)
	여초남재 (n=25)	47.36 (9.45)	23.54 (15.98)	13.42 (5.58)a	22.16 (4.08)a	16.19 (10.48)	9.56 (2.69)	4.38 (2.92)a	128.60 (29.60)
	남초여재 (n=7)	48.43 (4.89)	15.75 (16.50)	10.57 (5.06)a	21.71 (3.45)a	17.40 (11.01)	10.00 (2.24)	8.00 (3.00)b	115.57 (29.93)
	F값	0.84	1.21	8.22**	3.76*	0.23	0.10	3.44*	2.72
전혼 해체 사유	사별 (n=16)	47.25 (7.81)	22.19 (17.23)	18.81 (6.77)	22.44 (5.72)	21.69 (8.06)	9.87 (2.80)	6.17 (3.74)	146.25 (37.07)
	이혼 (n=32)	46.16 (9.81)	22.04 (14.50)	15.41 (6.04)	25.38 (5.17)	17.36 (9.61)	9.63 (2.56)	6.35 (3.95)	132.59 (33.08)
	t값	0.39	0.03	1.77	-1.79	1.49	0.29	-0.13	1.30
계자녀 유무	계자녀 無 (n=25)	48.20 (7.22)	관련없음	13.24 (5.62)	22.24 (3.78)	20.55 (8.72)	9.40 (2.27)	5.13 (3.36)	121.68 (31.44)
	계자녀 有 (n=39)	44.79 (10.20)	31.24 (10.24)	17.05 (6.14)	24.77 (5.83)	15.32 (9.90)	9.71 (2.72)	6.24 (3.95)	142.36 (31.58)
	t값	1.45	.	-2.49*	-2.11*	1.90	-0.47	-0.94	-2.56*
계자녀 동거 여부	계자녀 비동거 (n=13)	43.08 (10.31)	27.83 (10.90)	18.46 (6.65)	21.54 (5.67)	15.50 (8.54)	9.33 (2.02)	5.42 (4.08)	134.31 (28.42)
	계자녀 동거 (n=26)	45.65 (10.24)	32.81 (9.73)	16.32 (5.87)	26.38 (5.30)	15.22 (10.81)	9.88 (3.01)	6.71 (3.89)	146.38 (32.82)
	t값	-0.74	-1.41	1.02	-2.63*	0.07	-0.58	-0.91	-1.13
전혼 자녀 유무	전혼자녀 無 (n=11)	39.18 (12.18)	31.63 (6.44)	17.55 (7.06)	25.73 (3.82)	관련없음	8.91 (3.18)	3.80 (2.68)	118.82 (23.93)
	전혼자녀 有 (n=38)	48.58 (6.74)	20.40 (16.16)	16.18 (6.23)	24.03 (5.79)	20.92 (8.17)	9.86 (2.43)	6.84 (3.87)	143.13 (35.42)
	t값	-2.45*	3.16**	0.62	0.92	.	-1.07	-1.68	-2.13*
전혼 자녀 동거 여부	전혼자녀 비동거 (n=11)	44.00 (5.68)	21.22 (10.95)	15.00 (5.20)	23.82 (5.74)	14.10 (9.10)	9.70 (2.45)	9.00 (4.55)	127.55 (32.24)
	전혼자녀 동거 (n=27)	50.44 (6.31)	20.12 (17.79)	16.67 (6.63)	24.11 (5.91)	23.44 (6.26)	9.93 (2.46)	6.21 (3.51)	149.48 (35.22)
	t값	-2.93**	0.22	-0.74	-0.14	-3.00*	-0.25	1.73	-1.78
mutual child 유무	mutual child 無 (n=39)	48.23 (7.69)	25.50 (15.06)	15.29 (5.95)	23.64 (5.25)	19.47 (8.88)	9.47 (2.35)	6.67 (3.92)	139.64 (31.16)
	mutual child 有 (n=25)	42.84 (10.59)	23.62 (14.43)	15.92 (6.64)	24.00 (5.33)	14.22 (10.31)	9.76 (2.85)	4.61 (3.22)	125.92 (34.38)
	t값	2.36*	0.46	-0.39	-0.27	1.86	-0.44	1.88	1.65

* p < .05 ** p < .01 같은 행의 다른 문자는 집단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한 경우 여성($M=17.14$, $SD=8.11$)보다 남성($M=25.22$, $SD=6.34$)이 친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2.24$, $p<.05$),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여성($M=27.00$, $SD=12.43$)이 남성($M=15.27$, $SD=14.91$)보다 계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다($t=-2.19$, $p<.05$). 따라서 전혼체 사유가 재혼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의 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계자녀 및 전혼자녀 유무와 동거여부에 따른 차이

계자녀 유무와 동거여부에 따라서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t-검증한 결과, 재혼가족의 계자녀 유무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혼생활의 질은 차이가 있었다. 즉 계자녀가 있는 사람이 계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재혼생활의 질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t=-2.56$, $p<.05$). 특히 계자녀가 있는 사람은 계자녀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재혼으로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더 잘 다루며($t=-2.49$, $p<.05$), 재혼가족 체계내에서의 경계도 보다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t=-2.11$, $p<.05$).

계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경계의 명료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계자녀와 동거하는 사람이나 비동거하는 사람 모두 재혼생활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혼가족 체계내에서의 경계는 계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명확한 경향을 보였다($t=-2.63$, $p<.05$). 선행 연구에서 재혼가족에 계자녀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재혼가족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재혼부부의 이혼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Booth & Edwards, 1992; McCarthy, 1978; Teachman, 1986; White & Booth, 1985), 본 연구 결과에서는 계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가족의 경계가 보다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혼자녀 유무와 동거여부에 따라서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t-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재혼가족의 전혼자녀 유무

에 따라서 전반적인 재혼생활의 질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13$, $p<.05$). 특히 전혼자녀가 있는 사람은 전혼자녀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부부관계($t=-2.45$, $p<.05$)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혼자녀의 존재는 결혼관계의 질보다도 가족생활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White & Booth 1985; Ganong & Coleman, 1994 재인용)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계부모-계자녀 관계에서는 전혼자녀가 없는 사람이 전혼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계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t=3.16$, $p<.01$).

전혼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서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관계 및 친자녀와의 관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혼자녀와 동거하는 사람이나 비동거하는 사람 모두 재혼생활의 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재혼한 부부의 관계는 전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2.93$, $p<.01$), 친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전혼자녀와 동거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0$, $p<.05$).

5) 재혼 후 출산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

재혼한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혼생활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에 의하면, 재혼 후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가지지 않은 부부가 자녀를 둔 부부보다 부부관계가 더 좋은 것($t=2.36$, $p<.05$)을 제외하고는 재혼생활의 질 전반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혼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시된 선행 연구들(Ambert, 1988; Ganong & Coleman, 199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는데, 설문 응답 결과, 재혼가족에서 출생한 자녀의 효과는 결혼생활의 여러 영역 중에서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장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서는 재혼가족에서 출생한 자녀가 결혼생활에 지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로 더 많은 대상을 표집하고,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이들 자녀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연구가 요구된다.

3. 재혼생활의 질과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간의 관계

재혼생활의 질과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세 변인은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r=0.36$)이나 갈등해결($r=0.56$)을 잘 하는 재혼부부가 결혼만족도도 높으며,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잘 할수록 갈등해결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0.68$). 재혼생활의 질이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혼생활의 질은 전반적으로 결혼만족도($r=0.42$), 의사소통($r=0.35$), 갈등해결($r=0.46$)과 각각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있다. 즉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잘 할수록 전반적인 재혼생활의 질도 좋은 경향이 있다.

재혼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영역 중 특히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갈등해결 모두와

상관이 있는 중요한 요인은 재혼가족의 부부관계와 친족관계이다. 재혼가족의 부부관계는 결혼만족도($r=0.75$), 의사소통($r=0.58$), 갈등해결($r=0.70$)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 즉 재혼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잘 할수록 부부관계의 질도 양호하다. 또한 재혼가족의 친족관계 역시 부부의 결혼만족도($r=0.31$), 의사소통($r=0.35$), 갈등해결($r=0.30$)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잘 할수록 현재의 친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혼가족에서 친부모-친자녀 관계는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r=0.56$)나 갈등해결($r=0.42$)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갈등해결을 잘 할수록 전혼자녀를 포함한 친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혼가족에서 계부모-계자녀 관계나 전혼가족과의 관계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과 유의한 상관이 없으므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재혼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 중 재혼으로 야기된 부정적 감정 다루기는 재혼부부의 의사소통과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r=0.39$), 재혼가족 체계내에서의 경계의 명료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역시 정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0.35$). 즉 재혼으로 야기된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룰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며, 재혼가족 체계내에서의 경계가 명확할수록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재혼생활의 질,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간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

재혼생활의 질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갈등해결
부부관계	.75**	.58**	.70**
계부모-계자녀관계	.08	.18	.18
부정적 감정 다루기	-.04	.30**	.16
경계의 명료성	.35**	.11	.11
친부모-친자녀관계	.56**	.14	.42**
친족관계	.31*	.35**	.30*
전혼가족과의 관계	.13	-.20	-.00
재혼생활의 질(총점)	.42**	.35**	.46**
평균(표준편차)	14.98(4.28)	34.25(6.95)	34.95(6.11)

* $p < .05$ ** $p < .01$

4.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인 면접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접근으로서 설문지를 통해 재혼가족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한 것 외에 설문지 조사에서 빠뜨리기 쉬운 측면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양적 결과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해 재혼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들어봄으로써 재혼가족생활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참가자의 선정 및 절차

원칙적으로 참가자는 설문 조사에 응한 사람으로서 설문지 마지막에 인터뷰에 대해 소개를 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부족하여 이미 참가를 희망한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다. 여성 참가자들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모여 각자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선호하였고, 남성 참가자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선호하였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3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협조적이었으나 역시 참가를 원하는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3명의 여성 참가자가 선정되었고 1999년 2월 21일 조용한 밀폐된 카페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2명의 연구자가 약 5시간동안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2명의 지원자를 한 명의 연구자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본인이 원하는 장소(직장, 카페)에서 1999년 2월-3월까지 한 번 혹은 두 번의 개인면접을 실시하였다.

2) 포커스 그룹 및 개인 면접

포커스 그룹은 일반적으로 6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집단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의 형식이다. 참가자들은 연구자의 질문에 각각 답할 뿐 아니라 서로의 경험담을 들으며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참석자간의 상호작용으로 일대일 개인 인터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rueger, 1994).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개인 면접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가 가장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노출(self-disclosure)을 함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인터뷰 질문을 구조화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가능한 한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초혼이거나 전혼자녀

가 없는 재혼녀로 모두 계자녀가 있는 계모들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참가한 남성들은 이혼 후 초혼인 여성과 재혼을 한 사람들로서 전혼자녀가 있다. 이들이 현 결혼에서 느끼고 경험한 내용들을 재혼생활의 질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의 인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1) 계모의 재혼생활

① 계자녀와의 관계

본 연구에 참가한 계모들은 계모로서의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계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계자녀를 키우는데 성과급인 것이 너무 신경질이 난다. 결과가 좋으면 믿을만하군 그리고 나쁘면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랬잖아 그러면 돌아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딸(계자녀)한테는 쥐잡듯이 한다. 왜냐하면 10살 때 들어왔으니까 모르는 부분도 많고 내가 모르는 일인데 책임은 나한테 떨어지니까. 엄마로서의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잘 키워달라고 바라는건 무리라고 생각한다 (45세, 김영희: 초혼으로 삼혼인 남성과 결혼)

여성 참가자들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계모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끼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계속해서 부딪히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한편, 계자녀에 대해 같은 피해자라는 입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변화, 성장, 그리고 적응해나가는 계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모든 언쟁과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본인의 결혼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어디를 가서 몇일 집을 비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더라. 그때 아 얘가 우리 결혼생활에 방해일 때가 더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다 (김영희)

계모로서의 어려움과 계자녀에 대한 엇갈린 감정들은 부모로서의 경계의 명료성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계자녀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야단을 치기가 쉽지 않고 또 야단을 쳤을 경우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위치의 불분명함 때문에 혼란을 경험한다. 이것은 결혼생활에서 본인의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여 경계가 명료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며 결국 계자녀가 없는 사람의 결혼만족도가 계자녀가 있는 사람의 결혼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난 설문 조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재혼 후 출산한 자녀와의 관계

참가자 중 두 명이 재혼생활에서 자신의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모두 이 친자녀에게서 찾을 만큼 친자녀의 의미는 막강하였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다른 친 엄마가 자녀에게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거 채워주고 내 아이가 생김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루어 놓은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42세, 이숙자: 재혼여성으로 재혼남과 결혼)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친자녀에게 미안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우선 정상적인 가정을 못 쉰서 미안하고 나 죽고 딸돌립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전처에한테 화나는 일을 내에한테 화풀이하게되지 (김영희)

나도 동네북으로 우리에만 때린다. 우리애가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하냐고 할 정도니까. 그래야 다른 애들 때릴 때 죄의식을 덜 느낀다 (이숙자)

전반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결혼생활에 많은 의지와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재혼 후 출산 자녀가 없는 부부가 있는 부부보다 부부관계가 더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와 모순된다. 포커스 그룹에 참가한 여성들이 모두 출산 경험이 없어서 본인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박미숙씨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있다. 재혼 후 출산 자녀가 있는 김영희씨나 이숙자씨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박미숙씨가 상대적으로 계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현재의 결

혼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재혼 후 출산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의 여성들이 계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갖고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설문 조사의 결과와 일치하여 부부생활에 만족한다면 굳이 자녀를 가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③ 부부관계

본 연구 참가자들은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계자녀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부부관계라는 사실에 동의를 하였다. 즉 계모와 전처자녀 가운데 끼인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참가자들의 남편은 자녀 문제의 경우 강 건너 불구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후백락을 모르고 계모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누가 벌려놓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동참을 안 한다. 아무리 내새끼래도 엄마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 아들하고 놀아주라고 하면 피곤하다고 하고...아이들의 좋은 모습만 밤에 잠깐 보니까 현실을 모르고 처음엔 애들 나쁜 점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좋은 얘기만 한다. 어쨌든 배우자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어려운 자리이다. 내가 잘못했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애는 둘 사이를 쉴새없이 파고들게 된다 (김영희)

오히려 계모가 계자녀의 생활습관이나 훈육에 적극적인데 비해 남편은 동조하지 않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자녀양육을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이고 고정관념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는 남편의 존재와 자녀양육의 의견상의 일치가 계모가족에서의 적응과 연관이 된다는 Guisinger, Cowan, & Schuldberg (1989)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재혼한 남성들이 계모와 자신의 전혼자녀사이에서의 역할이 계모와 계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친족관계

계모들의 경우 일반 초혼 가정에서처럼 시댁문제

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계자녀의 양육을 둘러싼 고부갈등이나 시댁의 간섭 또는 새로운 친족관계에서 역할과 권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숙자씨의 계자녀는 할머니는 자기편이라는 생각에 계자녀들의 버릇이 없어지고 엄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함으로서 계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방해를 한다고 느낀다.

처음 시집왔을 때 자기 아들이 잘나서 결혼을 세 번씩이나 했다는 말, 문제가 생기면 그정도도 각오를 하지 않았나, 다 알고 왔으면서 뭘 그러느냐 그럴땐 정말 내가 비정상인 것 같은 생각이들 정도였고--애꾸눈 나라의 두눈땡이 같았다. 나는 정상인데 저쪽에서 우기니까 내 가치기준이 흔들리고 초점 안 맞는 안경을 쓴 듯, 슬취한 듯 그렇게 살았다. 의절도 했는데 애들이 크면서 할머니를 찾으니 까 도리가 없더라 (김영희)

결국 초혼여성들이 재혼남성과 결혼했다고 해서 가족관계에서 보다 평등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혼가족으로 편입되는 상황으로 인해 부가적인 문제들이 생겨 갈등을 더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박미숙씨 가정이 평온했던 이유는 할머니가 계모의 권위를 자녀들 앞에서 세워주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할머니가 전처자녀를 너무 싸고도는 문제, 그래서 형제들간에 편을 나누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혼생활에서 자녀를 또 낳았다는 것에 대한 은연중의 불만을 내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담은 친족관계가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설문 조사의 결과와 일치한다.

⑤ 재혼가족에서의 특징적 정서

본 인터뷰에 참가한 여성들은 주위 사람들과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성격이 폐쇄적이 되어 가고, 부정적인 시선과 말을 건넨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버려 친구나 대인관계까지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존심의 손상과 소외감을 맛보지 않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첫 애를 몇 살에 낳았냐고 물어보면 계산하느라고 머리 속이 난리다.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거 싫고 계속 새사람만 만나게 되고 친구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계자녀) 키워 가지고 나중에 지어미 찾으면 너 억울하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쫓는다. 그럴 때 너무 가슴이 쓰리고 내가 그런 애기한 사람과는 다시는 안 만난다 (이숙자)

이들은 계모라는 위치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편견과 질타 및 호기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결혼 전 실감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계모에 대해 환상이나 안일함을 갖고 있다가 일상생활에서 뼈저리게 부정적 인식의 벽에 부딪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재혼남성의 재혼생활

① 부부관계와 전혼자녀와의 관계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본 연구의 남성 참가자들은 아내와 전혼자녀사이에서 처신의 어려움을 느낀다. 주로 아내에게는 섭섭함을 느끼지만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자녀를 아내 몰래 달래주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아내는 애 나쁜 것 한 것만 얘기하는데 아내에게는 듣기 좋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여편네가 애를 건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 못지 않게 호강시키면서 키웠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게 안 되더라. 간섭하면 싫어하니까 간섭도 못하고...어른으로서 아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내가 야단친다고 말은 하지만 아이 쪽에서 이해를 많이 했다. 엄마가 저러는거 아빠도 기분이 언짢다는 것을 말하고 구슬리는 편이다 (44세, 최재식: 초혼여성과 재혼한 이혼남)

최재식씨의 경우는 전혼자녀와 동거를 하는 경우이고 전혼자녀를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정민철씨의 경우는 전혼자녀에게 더욱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혜미(전혼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온다. 그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것도 힘들었다. 나는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지금은 다 포기하고 어머니께 맡기고 있다. 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은정(재혼 후 출산 자녀)이를 볼 때마다 혜미가 생각이 나고, 혜미만

생각하면 아내에게 참 섭섭하지만 싫다니까 그냥 내가 포기할 했다 (40세, 정민철: 초혼여성과 재혼한 이혼남)

재혼을 고려할 당시에는 계모와 계자녀와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우리라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최재식씨는 그 이유로 “당시에는 서로 몰입하고 좋은 사이라서 아이 문제는 잊어버렸다”고 하였고, 정민철씨는 현재의 아내와 데이트할 때 헤미(전혼자녀)를 데리고 나간 적이 종종 있었지만 별 불만을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귀여워해서 충분히 계모로서의 역할을 하리라고 믿었다고 한다. 이것은 초혼인 여성과 결혼을 함으로써 더욱 힘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서로 재혼이라면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덜 피곤했으리란 생각이 든다. 적어도 서로 피해의식은 없고 샘샘이란 생각이 들 테니까. 또 전혼자녀도 똑같이 자녀라는 생각도 일치할 것이다 (정민철)

이러한 결과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 한쪽만 재혼인 경우보다 재혼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고 가족체계내에서의 경계가 보다 명료하다는 설문조사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는 부부 모두가 재혼인 경우 서로의 전혼자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전혼자녀가 없는 경우라도 전혼해체라는 사건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부부의 심리적인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성 참가자들은 가족구성원의 경계에 대해 그들의 아내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즉 남성들은 본인의 가족으로 전혼자녀를 포함시키는 반면, 아내들은 부부와 재혼 후 출산 자녀만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 동반 모임이 있을 때 아내들이 계자녀의 동반을 원치 않음으로써 부부간에 갈등을 야기시킨다고 한다.

② 재혼 후 출산 자녀와의 관계

남성 참가자들의 아내들은 모두 초혼인 여성으로서 아내에게 재혼 후 출산 자녀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남편들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남편 자신에게는 자녀의 출산이 물론 기쁜 일이지만, 자신의 결혼을 강화시키거나 묶어주는 연결 고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아내가 자신의 자녀를 낳아봄으로써 친부모-친자녀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부부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나는 헤미 하나로 만족했고 사실 헤미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었다. 한편으로는 헤미에게 더 죄를 지은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도 엄마가 되보니까 헤미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은 이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정민철)

또한 남성 참가자들의 부인들은 자식을 낳음으로써 남편의 친족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재혼 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현재의 친족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③ 재혼가족의 특징적인 점서

여성 참가자들이 재혼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과 사회의 편견으로 성격이 폐쇄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인터뷰 결과와는 반대로 남성들은 재혼과 함께 대인관계가 원만해짐으로써 결혼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재혼 전에는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가지가 꺼려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부동반 모임에 나가고 집으로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으니까... 혼자 틀 속에 갇혀 있다가 그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 (정민철)

이것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에게 보다 허용적인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특성이 본 인터뷰에 참가한 남성과 여성의 상반된 경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혼생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도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급격한 가족형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규범이나 가치관은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재혼가족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재혼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 그리고 재혼가족 생활의 질과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인터뷰를 통한 그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전반적인 재혼가족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내린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특성이 재혼가족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재혼의 유형에서 나타났듯이 여자 재혼자와 남자 초혼자의 결합이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전혼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6)의 통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남녀재혼의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해도 남자가 친부모로서 전혼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계모가족이 많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 특성은 재혼생활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남성보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가 모두 재혼인 경우가 한 쪽만 재혼인 경우보다 재혼가족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더 잘 다루고, 가족내의 경계도 보다 명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쪽 모두 재혼인 부부가 전혼해체와 재혼이라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재혼생활의 질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관계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다른 모든 요인들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이루는 유일한 요인은 부부관계이고 인터뷰에서도 배우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강조하여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부부관계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계부모-계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재혼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을 잘 다루며, 재혼가족 체계내의 경계도 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계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부모로서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계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추측된다. 또한 계부모보다 계모가 계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계자녀는 계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으나, 계자녀를 둔 여성 스스로가 계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계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계모의 역할에 대해 많은 갈등과 부당함, 그리고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한 인터뷰 결과와 계모들이 다른 가족의 어머니에 비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Santrock과 Sitterle(1987)의 결과로 뒷받침 될 수 있다. 즉 계모로서의 지위와 권위는 주어지지 않고 양육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남편의 지지 부족과 아버지의 역할 소홀이 계모로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전혼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전혼자녀가 있거나 함께 동거하는 경우가 전혼자녀가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부부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혼 친자녀의 존재가 재혼한 생모에게 지지자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임춘희(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전혼자녀의 존재가 재혼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전혼자녀와 동거함으로써 별거시 겪을 수 있는 그리움이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의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전혼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계자녀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혼자녀의 존재가 계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재혼 후 출산자녀가 재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재혼 후 출산자녀가 새로 구성되는 재혼가족의 모든 구성원들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Ganong과 Coleman(1994)의 연구결과와 대조적으로 재혼 후 출산자녀가 없는 부부의 부부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인 재혼 부부의 경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혼 후 출산 자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초혼 여성이나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에게 재혼 후 출산자녀의 존재는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된다는 여성 스스로의 고백과 이에 대한 남성의 인정도 주목할만한 인터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잘 할수록 전반적인 재혼생활의 질도 좋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혼가정의 모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재혼가정 모의 역할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김연옥(199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재혼부부의 결혼만족도, 의사소통, 갈등해결 모두와 상관이 있는 재혼생활의 질의 하위 영역은 재혼가족의 부부관계와 친족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혼가족에서의 부부사이 뿐 아니라 예비 재혼부부들이 재혼가족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재혼 전에 대화를 하여 합의점을 찾는 것이 결혼 후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길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재혼자들이 자기 노출을 꺼려하여 표집에 어려움이 있어 64명의 재혼자를 통한 설문조사와 5명의 재혼자를 통한 인터뷰를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재혼가족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혼가족의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영향력은 재혼유형이나 재혼가족에서의 배우자의 성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대상의 수가 제한되어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 재혼 유형별 표집의 수를 포함한 전체 표집의 수를 늘림으로써 재혼가족의 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재혼가족의 역동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부부와 재혼가족의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단위의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재혼가족이 시간

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 재혼 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재혼으로 야기되는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볼 때, 재혼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갈등은 재혼 전, 그리고 재혼 후라도 교육을 통해 미리 점검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혼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 즉 이혼이나 사별로 홀로 된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재혼준비 교육 프로그램, 재혼할 대상이 있는 예비 재혼부부 프로그램,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현재 재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재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시되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연옥(1999). 재혼가정내 모의 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42-61.
- 2) 변화순(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3) 임춘희(1996). 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4)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 가정학회지*, 35(1), 191-204.
- 5) 중앙일보. 1999. 10. 19.
- 6) 통계청(1997). *인구동태통계연보*.
- 7) 통계청(1999). 98년 인구동태통계결과 <http://www.nso.go.kr>
-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1996). *재혼 그 또 다른 시작*.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9) 한국여성개발원(1997). *여성통계연보*.
- 10) Ahrons, C., & Wallisch, K.(1987). Parenting in the binuclear family: Relationships between biological and stepparents.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pp. 225-256).

- New York: Guilford.
- 11) Ambert, A.(1988). Relationships with former in-law after divorce : A research not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79-686.
 - 12) Anderson, J.G. & White, G.D.(1986).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interactive and relationship patterns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nuclear families and stepfamilies. *Family Process*, 25, 407-422.
 - 13) Booth, A., & Edwards, J.(1992). Starting over: Why remarriages are more unstable. *Journal of Family Issues*, 13, 179-194.
 - 14) Boss, P.(1980). Normative family stress: Family boundary changes across the lifespan. *Family Relations*, 29, 445-450.
 - 15) Boss, P., & Greenberg, J.(1984). Family boundary ambiguity: A new variable in family stress theory. *Family Process*, 23, 535-546.
 - 16) Crosbie-Burnett, M.(1984). The centrality of the steprelationship: A challenge to family theory and practice. *Family Relations*, 13, 459-464.
 - 17) Farrell, J., & Markman, H.(1986).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factors in the etiology of marital distress: The example of remarital couples. In R. Gilmour & S. Duck(Eds.), *The emerging field of personal relationships*(pp. 251-26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18) Furstenberg, F.(1987). The new extended family: The experience of parents and children after remarriage.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Current research and theory*(pp. 42~61). NY: Guilford.
 - 19) Ganong, L., & Coleman, M.(1994). *Remarried family relationship*. Sage.
 - 20) Glick, P.(1989). Remarried families, stepfamilies, and stepchildren: A brief demographic analysis. *Family Relations*, 38, 24-27.
 - 21) Guisinger, S., Cowan, P., & Schulberg, D. (1989). Changing parent and spouse relations in the first year of remarriage of divorced fa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45-456.
 - 22) Hamner, T., & Turner P.(1996).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 Allyn & Bacon.
 - 23) Hetherington, E.M., & Clingeempeel, W.G.(1992). Coping with marital transit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 Child Development*, 57.
 - 24) Ihinger-Tallman, M. & Pasley, K.(1987). *Remarriage*. CA: Sage.
 - 25) Krueger, R. A. (1994). *Focus group: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26) Kurdek, L.(1989). Relationship quality of newly married husbands and wives: Marital history, stepchildren, and individual differences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053-1064.
 - 27) McCarthy, J.(1978). A comparison of the probability of the dissolution of first and second marriages. *Demography*, 15, 345-359.
 - 28) Olson, D., Fournier, D., & Druckman, J.(1982). Assessing marital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PREPARE-ENRICH. In E. Filsinger(Ed.), *Marital family assessment*. Beverly Hills: Sage
 - 29) Pasley, K.(1987). Family boundary ambiguity: Perceptions of adult remarried family members. In K. Pasely, M. Ihinger-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Current Research & Theory* (pp. 206-224). NY: Guilford.
 - 30) Pasley, K., Dollahite, D.C., & Ihinger-Tallman, M.(1993). Bridging the gap: Clinical ap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on the spouse and stepparent role in remarriage. *Family Relations*, 42, 315-322.
 - 31) Pasley, K. & Ihinger-Tallman, M.(1989). Boundary ambiguity in remarriage: Does ambiguity differentiate degree of marital adjustment and integration? *Family Relations*, 38, 46-52.

- 32) Teachman, J.(1986). First and second marital dissolution: A decomposition exercise for whites and blacks. *Sociological Quarterly*, 27, 571-590.
- 33) Quick, D., McKenry, P., & Newman, B.(1994). Step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Adjustment to new family.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Stepparenting-Issues i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105~126). Westport, CT : Greenwood.
- 34) Santrock, J. W. & Sitterle, M.(1987).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stepmother families. In K. Pasley & M. Ihinger-Tallman(Eds.), *Remarriage and Stepparenting today : Current research and theory*(pp. 273-299). New York : Guilford.
- 35) Spanier, G., & Furstenberg, F.(1987). Remarriage and reconstituted families, In M. B. Sussman and S. D. Steinmetz(Ed.),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pp. 419-432) NY : Plenum.
- 36) Visher, E.B., & Visher, J.S.(1990). Dynamics of successful stepfamilie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14, 3-12.
- 37) Walker, K.N., & Messinger, L.(1979). Remarriage after divorce: Dissolution and reconstitution of family boundaries. *Family Process*, 18, 185-192.
- 38) White, L., & Booth, A.(1985).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remarriages: The role of step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689-698.